

이것만은 최고(1)

기업문화 창조의 선두주자 '유비케어'

곰뽕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사막에도 금강석이 있다.
 우리 벤처기업들도 덩치가 크든 작든 저마다의 재주와 자랑거리가 있다.
 때문에 <이것만은 최고>의 주인공은 어느 기업이나 가능하다.
 그 첫 번째 주자는 기업문화 창조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 '유비케어'다.
 유비케어의 유별난 단결의 구심점이자 자랑거리인 독특한 '기업문화',
 그들만의 리그 속으로 합류해 보자.



▲ 유비케어 김진태 대표

'도전정신' 몸소 체험 한다



▲ 2003 도미노 시무식

e-Healthcare 전문기업 유비케어(대표 김진태)는 매년 독특한 시무식 행사로 한해를 시작한다. 벤처기업답게 '도전'과 '극기'의 정신적 개념을 시무식 행사를 통해 전달하고자 매해 몸소 체험하고 이겨내는 행사들

을 가져왔다. 2002년 시무식은 한계령 30KM를 10시간동안 야간 행군하여 한계령 정상에 올라 일출을 보았고, 2001년에는 새해 아침 눈 덮인 미사리 조정경기장(약 7km)을 전 임직원이 뛰어 '마라톤 시무식'을 치루기도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유비케어의 독특한 시무식은 계속됐다.

바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열전! 도미노게임', '희망 2003년! 무한질주 유비케어!'를 큰 주제로 삼고 10여개 팀이 각각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로 이어서 멋진 도미노를 완성시키는 것이 과제다. 정확하게 정렬된 도미노가 연결되며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모습은 2003년 유비케어의 거침없는 행보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훌륭한 일터가 훌륭한 일군을 만든다



▲ 한경-레버링 훌륭한 일터상 수상

유비케어는 작년 제1회 '한경-레버링 훌륭한 일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상은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이 지난 98년부터 수상하고 있는 '미국의 훌륭한 일터

100'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제정, 시상되는 상이다.

심사 평가 결과 유비케어는 활발한 사내교육제도의 운영과 기념일 휴가,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젊은 벤처기업으로서 유연한 복지제도의 운영을 통해 독특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의 업계에서 입으로 퍼졌던 유비케어의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좋은 평가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핵심은 넉넉함과 즐거움



▲ 신입사원 래프팅 훈련

유비케어에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또 하나의 독특한 이벤트가 있다. 바로 김 대표가 직접 준비하는 '합창단 공연'이다. 이들은 김 대표가 대학시절

직접 단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까지 이사로 몸담고 있는 대학합창단이다. 올해는 시무식에 '특별 축하 공연'을 마련, 직원들을 위로했다.

김 대표는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성과 수익증대의 수단만은 아니다. 기업이 구성원의 생계만을 위한 수단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소극적 생각에서 벗어나 삶과 VISION의 터전, 꿈의 성취기반이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때 기업도 살고 구성원도 산다"고 강조한다.

힘겨웠던 2002년을 보내고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한 지금, 유비케어 임직원들은 그 어느 기업보다 잘다져진 화음과 결속력으로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